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### 미국 경제 회복, 불확실성 확대

- 지난주 버냉키(Bernanke) 연준 의장은 의회 증언을 통해 미국 경제상황이 다시 위축될 경우 새로운 대책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함.
  -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단기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발빠른 대책을 실행한 후 최근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출구전략을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왔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.
  - 폴 크루그먼(Paul Krugman) 교수를 비롯한 비평가들은 은행 신용의 축소, 높은 실업률의 지속과 전국에 걸친 주택압류건수 증가 등을 지적하며 버냉키 의장이 우려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함.
  - 미국 경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2009년 4/4분기 1.4% 성장하는 등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2010년 이후 성장세가 다시 약화되고 있으며 주요 선행지표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음.
  
- 낙관론자들은 개별기업의 실적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성장을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, 비관론자들은 과거 경기회복 시에는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현재는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이 침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임.
  - 자산운용사 슈로더(Schroders)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, 2010년 상반기 민간투자가 두 자리수의 성장을 기록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함.
  - 이 외에도 현재 일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함.
  - 그러나 미국의 실업률은 9.5%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- RAB 캐피탈의 관계자는 400만 호의 초과 주택이 존재하며, 25%의 주택이 담보수준을 하회하고 GDP의 30%에 달하는 모기지 부채가 부실화된 상황에서는 경제가 평시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함.

(Guardian, 7/25)